κόκκος 5

2019 MAY VOL. 206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02-950-5401 / www.bible.ac.kr

간호학과 3 학년 학우들이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갖기 위해 선배로부터 촛불을 점화 받은 후 선서식 무대로 이동하고 있다 . 왼쪽 지세연 학우 , 첫째 줄 왼쪽부터 졸업생 배예진 , 탁현정 , 두번째 줄 왼쪽부터 박효진 , 홍영은 , 송혜원 , 김소희 , 임지은

(관련기사 9 면)

반짝 반짝 – 캠퍼스가 변하고 있다

자율개선대학 – 혁신사업 모습 드러내

반짝 반짝 – 캠퍼스가 변하고 있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캠퍼스 교육환경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혁신사업단(단장 김은호 부총장)은 올해 혁신사업비로 14 억 6 천 6 백만 원 가운데 약 5 억을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하기로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노후한 강의실 장비를 바꾸고 있다. 그 외에도 진행 중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에 속도가 붙고 있으며, 학우들의 숙원인 남학우 통합휴게실이 문을 열게 된다.

√ **강의환경 개선**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는 대부분 2013 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기대수명을 다한 것이어서 이번에 16 개 교실의 컴퓨터를 새로 구입 설치한다. 이 작업은 늦어도 5 월 20 일 까지는 마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1 년, 2012 년도에 구입한 프로젝터도 새로 바꾸게 되는데 주로 복음관과 갈멜관의 것으로 7 개를 바꾼다. 사양은 5000 안시로 밝은 화면을 기대해도 좋다. 음향시스템도 6 대를 최신 사양으로 교체한다.

√ **WiFi 망의 교체** 학우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WiFi 망의 교체도 이번에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선로를 새로 깔아야 하는 공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에 공사를 시행하여 새 학기 부터는 교내 어디서나 인터넷 서비스가 잘 되는 환경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도서관의 노트북** 도서관 서비스의 일환으로 학우들에게 제공 되었던 노트북 컴퓨터도 5 대를 신규 구입하여 5 월 10 일 부터는 쓸 수 있게 되는데 년차적으로 대수를 늘려 20 대 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 복음관과 갈멘관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은 예정보다 앞당겨 늦어도 6 월 말 까지는 완공할 예정이다. 오는 5 월 16 일 공사팀의 최종 현장 답사가 있을 예정이며 5 월 28 일 착공, 6 월 말 공사를 끝낸다.

√ **남학우 통합휴게실** 그동안 학우들의 민원 1 호로 끊임없이 제기 되었던 남학우 통합휴게실이 문을 연다. 장소는 복음관 1 층 현 행정본부장실(복 109 호)이다. 일반학우들과 장애우들이 같이 쓰는 통합 휴게실이며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행정본부장실을 어디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중완 본부장은 학우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일단 자신의 사무실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사무실, 업무의 통합 등 공간을 조정한 후 결정 된다.

미니설교 두 개의 음성을 구별하자 (창세기 4:3~8)

이광삼 목사 (교목)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이것을 할까? 하지 말까?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창 4:7) 그러나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죽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차있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듣고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두 개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잘 구별하길 바랍니다. 사단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플 100% 참석 학우에 웰던 (Well Done) 상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 25:21)

▲ 채플에 참석한 학우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4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채플에 참석한 학우들에게 수여할 새로운 상 (賞) 이 지난 4 월 5 일 열린 교무위원회에서 제정 되었다 .

상 이름은 웰던 (Well Done) 상 , 예수께서 마태복음 25 장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 , 두 달란트를 받고 갑절의 이익을 남기도 돌아온 " 착하고 충성된 종 " 들에게 칭찬하신 말씀의 첫 마디가 Well Done 즉 ' 잘 하였도다 ' 이다 .

수상 기준은 졸업예정자 중에서 재학 중 모든 채플 (통상 12 시 채플) 에 100% 참석한 학우에게 주어진다 . 자신의 의무 채플참석일수를 다 채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웰던 (Well done) 상은 스룹바벨상 (재학 중 성경 최다독자에게 주는 상) 과 함께 졸업생에게 주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

첫 시상은 2020 년 2 월 18 일 학위수여식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유력한 수상후보는 **조창휘** (성서 4), **황예은** (상서 4), **김지현** (성서 4) 학우 등이다 . 이들은 지난 6 학기 동안 채플에 한 번도 빠진 일이 없다 . 이들의 뒤를 이어 성서학과 3 학년 재학 중인 김채현 , 남유진 , 양주향 학우들이 4 학기 연속 개근으로 웰던상의 수상후보군으로 진을 치고 있다 . 최준혁 (성서 4) 학우도 4 년 연속 개근이지만 8 학기를 채울 수 없어 수상 대상은 아니다 .

2 학기 연속 개근자는 강평강 , 백민석 , 이가영 (이상 성서 2), 이준기 (사복 2), 이현우 , 황재민 (이상 컴소 2) 학우들이 있다 .

웰던상은 공군의 상훈제도의 하나로 위급한 대형 사고를 막아낸 조종사들에게 부여되는 최고로 명예로운 상이다 .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하고』 (마 25:23)

우리대학 「대학혁신사업계획」 "우수하다"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컨설팅 팀 평가

우리대학의 「대학혁신사업계획」 은 , 추구하는 인재상이 분명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이 인재상과 적절히 연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컨설팅 팀은 지난 4 월 12 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우리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컨설팅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진단하였다 . 우리대학을 비롯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모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컨설팅 결과는 5 월 중 문서로 각 대학에 전달된다 . 이 컨설팅은 혁신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의 첫 번째 고비인 셈인데 우리 대학은 무난하게 이 고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컨설팅 자리에는 9 명의 컨설턴트들이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며 영역별로 질의하고 평가하였으며 우리대학에서는 김은호 부총장 , 총괄위원장 조윤경 교수 (교육부문 담당), 유정선 교수 (일립교육 담당), 김중완 행정본부장과 권경만 기획실장이 참석했다 .

전체사업이 중장기발전계획과 잘 연계되어 있고 성과관리부분도 우수하다고 하였으며 한 위원은 AI NAVI (All Inclusive Navigation) 사업은 대표 혁신사업으로 발전시켜 소규모대학에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었다 . 전체적으로는 소규모로 차별화가 분명하고 교육의 목적을 향한 구성원의 일관성과 성과관리 등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

반면 ' 일립교육혁신 ' 영역의 일부 사업은 대학의 설립목적과 괘를 같이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색채가 짙어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면 이어 가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 지역사회협력 사업에서는 환류체계가 잘 드러나도록 정량적으로 기술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

컨설팅 결과가 서면으로 전달되면 대학은 이 권고에 따라 수정한 후 시행해야 한다 .

대광교회 , 승강기 교체 3 백만 원 후원

대광교회 (서해원 목사 , 28 회) 에서 우리대학교 승강기 교체사업에 사용해 달라며 3 백만 원을 후원해주었다 .

서해원 담임목사는 "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일관된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배우고 전파해가는 귀한 대학이다 .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이 시설개선에 일조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잘 사용되길 희망한다 ." 고 말하였다 .

일산우리교회 , 승강기 교체 2 백만 원 후원

" 시설 개선에 마음을 동참시켜 "

일산우리교회 (김남웅 목사 , 36 회) 가 승강기 시설교체 대금 2 백만 원을 후원하였다 . 김남웅 담임목사는 " 한국성서대학이야말로 하나님의 밀알정신을 온전히 실천하고 전파해 온 대학이다 . 학교 설립의 목적을 한 치도 벗어남 없이 세상과 당당한 길을 걸어온 이곳의 시설 개선에 마음을 동참시켜 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고 말했다 .

도서관 팀원들 , 승강기 교체 150 만원 후원

소중한 의미에 공감을 , 라이브텍 협력사도 100 만원

도서관 최지은 팀장과 팀원 (김덕현 대리 , 유수연 직원) 들은 승강기 교체에 150 만원을 후원해 주었다 . 최 팀장은 " 승강기 고장으로 동승한 학우들이 당황하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승강기 얘기가 나올 때 마음이 늘 무거웠다 . 팀원들도 적극 동참해줘 의미가 깊다 " 고 말하였다 .

김덕현 대리는 지난해 건강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낸 후 업무에 다시 복귀했다 . " 구성원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빠르게 회복중이다 . 공동체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선뜻 참여하였다 " 고 밝혔다 . 5 월 결혼을 앞둔 유수연 직원도 " 인생의 분기점을 앞두고 소중한 의미를 남기고 싶어 흔쾌히 동참했다 " 며 환한 웃음을 내보였다 .

도서관 팀원 전체의 선한 의지를 전해들은 ㈜라이브텍사 박경화 대표도 " 학우들의 발걸음에 보탬을 주고 싶다 " 며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100 만 원을 후원해 줬다 . 라이브텍사는 도서관용 각종 소프트웨어개발 , 시스템 운영과 아이템 등을 공급하는데 우리대학 도서관 시설개선과 발전에 일조해 왔다 .

승강기 교체 기금 모금 현황

대광교회(서해원 목사, 28회)	3,000,000	94학번 성서모임	120,000
우리교회(김남웅 목사,36회)	2,000,000	양희정(사무관리팀장)	100,000
김인화(평가감사실장)	1,200,000	유미나(교학팀장)	100,000
김중완(행정본부장)	1,000,000	이인경(충무어린이집 원장)	100,000
박경화(라이브텍 대표)	1,000,000	조지선(상계백병원어린이집 원장)	100,000
이강동(편집주간)	500,000	새샘교회(손승우 목사)	50,000
김화영(상계5동어린이집 원장)	300,000	신금주(학생생활상담센터 과장)	50,000
안미희(대학어린이집 원장)	300,000		
김신덕(꿈빛어린이집 원장)	200,000	합계(2019.4.1~2019.4.30)	10,320,000
정나나(늘사랑어린이집 원장)	200,000	누계(2018.12.1~2019.4.30/약정액 포함)	182,403,555

개교 67 주년 기념 밀알축제 준비 중

총학 ' 청춘 휴게소 ', 총동문회 ' 동문 초청의 날 ' 기획

▲ 밀알축제 포스터 ' 청춘휴게소 '

한국성서대학교 설립 67 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밀알축제가 5 월 13 일 학교에서 진행된다. 개교 당일 설립 67 주년 기념예배는 김희태 총동문회장 설교와 이성화 (부천서문교회 담임) 목사의 기도로 오전 11 시 로고스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 **예음총학**

이번 밀알축제의 주제는 ' 청춘 휴게소 ' 이다. 5 월의 초록빛 아래 교내 곳곳으로 플리마켓 장터가 마련되고 학과 및 학회별로 각종 간식과 먹거리 음료 부스가 흥겨운 축제분위기를 돋운다. 제 16 회 총장배 영어찬양대회와 대학가요제가 잔디밭 무대에서 펼쳐져 노래와 춤 개그를 엿볼 수 있다. 게스트가 초청돼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게 된다. 총학은 축제 기간 중 개최해 오던 체육대회는 10 월 크리스천데이에 갖는다.

◆ **총동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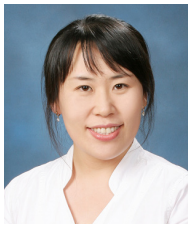
이번 개교기념일에는 동문들의 홈커밍데이 행사도 기념예배에 이어 천마홀에서 개최된다. 올해 초청 대상은 졸업한지 40 년, 30 년, 20 년, 10 년 되는 동문들로 졸업년도 기준으로는 1974 년 (24 회), 1989 년 (34 회), 1999 년 (44 회), 2009 년 (54 회) 졸업동문이다. 각종 행사와 함께 푸짐한 선물도 준비 중이다. 동문들의 참여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2018 년도 최우수 교수 , 교직원 선정

최우수 업적 장인순 교수 , 최우수 수업평가 고미숙 교수
최우수 교직원 김은영 (사무관리팀), 최우수 성과 정은상 (대학원 교학팀)

▲ 장인순 교수

▲ 고미숙 교수


▲ 김은영 대리

▲ 정은상 직원

2018 년도 최우수 업적평가에 장인순 (간호학) 교수, 최우수 수업평가로 고미숙 (간호학)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사무팀 김은영 대리가 최우수 직원, 대학원 교학팀 정은상 직원이 최우수 성과직원으로 기쁨을 누렸다. 17 일 채플을 마치고 해당 수상자에게 시상식을 가졌다.

장인순 교수는 " 부족한 종이 귀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 학우들과 동료 교수 모두가 배려해준 선물이다. 주님께 영광 드린다 " 고 말했다. 최우수업적평가는 지난 1 년간 4 가지 (신앙, 교육, 연구, 봉사) 지표로 결정된다.

최우수수업평가의 고미숙 교수는 강의영역 전부분에서 고른 호응을 얻어 영예를 차지하였다. "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미약함 점은 보완하여 헌신을 다하겠다 " 고 기쁨을 표했다. 우수강의 평가는 강의계획서, 수업진행 등 14 가지 항목을 학우들의 직접 평가로 선정된다.

최우수교직원의 김은영 (사무팀) 대리는 " 곁에서 수고해 준 동료의 도움이 컸다 " 며 주님과 공동체 전체에 공을 돌렸다. 평가는 신앙과 근무태도 및 숙련도 등 14 개 영역 성과와 다면평가를 종합해 선발된다.

최우수성과의 정은상 (대학원 교학팀) 직원은 " 부족함이 많은 자에게 과분한 선물 " 이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성과평가는 업무에서 드러난 업적의 정량지표가 기준이다. 이밖에도 교학팀이 최우수부서에 선정됐다.

학교 카페 , 시험기간 중 24 시간 개방

무인판매로 학우들에 대한 신뢰감 돋보여

▲ 학교 카페내부 전경

학교 카페 (대표 이은혜) 가 이번 중간고사 기간 중 24 시간 개방해 학우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 카페에는 밤늦은 시간에 허기를 달래줄 주먹밥과 샌드위치 등 간단한 음료까지 배치됐다 . 학우들은 먹은 만큼 금액만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 서로에 대한 두터운 신뢰와 배려가 엿보이는 성서공동체의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

카페에서 하루 공부한 이한나 (성서 3) 학우는 " 카페는 소란한 면도 있었지만 집중력은 도서관에 뒤지지 않았다 . 무인 판매용 음식까지 배치할 만큼 믿음과 신뢰 , 세심함이 돋보였다 " 고 말했다 . 카페는 일부 학우들에겐 자리를 놓고 눈치를 살필 만큼 좋은 학습 공간이 되었다 .

이 대표는 "1 주 먼저 중간시험을 치르는 간호학과 학우들은 밤 11 시 도서관 문이 닫으면 갈 만한 곳이 없었다 . 밤늦게 공부해보겠다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문을 열게 되었다 " 고 말했다 . 앞으로도 이곳이 시험공부 공간으로 쓰이도록 적극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 .

폐지 팔아 도서관에 공기청정기 2 대 구입 기증

직원 4 인방의 선행 , 건강한 호흡을 학우들에게 ...

▲ 멀티미디어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학교 업무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지를 모아 판매한 대금으로 도서관에 공기청정기 2 대를 설치해 준 교직원들이 화제다 . 미담의 주인공은 입학팀 신지수 팀장과 시설팀 이은광 대리 , 사무팀 고성산 , 도서관 유수연 직원이다 .

최근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시기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을 위한 공기청정기이기에 이들의 선행이 가슴에 더 와 닿는다 . 신지수 팀장은 " 요즘 미세먼지가 걱정됐다 . 문득 도서관에서 공부중인 학우들의 건강 유지에 필요할 것 같아 뜻을 모았다 . 동료 직원들의 협조로 가능했다 " 며 앞으로도 건강한 성서공동체가 되길 희망하였다 .

멀티미디어실에서 자료를 검색하던 김지영 (성서 4) 학우는 " 공간 내 먼지 냄새와 답답함도 없고 시야까지 상쾌하다 . 예전에 음식 냄새로 불쾌한 기억이 있었다 " 며 직원들의 헌신이 더해진 공기청정기를 적극 반겼다 . 공기청정기는 3 층 멀티미디어실과 4 층 열람실에 설치 됐다 .

미담의 주인공인 이들의 폐지 수거는 지난 2014 년 전부터 시작했다 . 당시 신지수 , 이은광 직원이 폐지가 버려지는 걸 목격하고 재활용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 일과 후 각 부서를 돌며 수거 후 판매한 대금 전액은 장학금으로 후원하였는데 이를 지켜본 고성산과 유수연 직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 현재까지 이들이 폐지 판매로 학교에 후원한 총 금액은 1500 여만 원 달한다 .

“그리스도의 흔적이 삶속에 드러나”

성서학회 고난주간 행사, 경건한 신앙인 다짐

▲ 이기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성서학회가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닮긴 의미를 새기고 경건한 신앙인 되기를 다짐하는 기도회를 15 일 오후 7 시 천마홀에서 진행하였다.

교목실 이기훈 목사가 ‘그리스도의 흔적’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혼탁의 시대에 고난을 피하지 않고 몸소 받아들인 건 그리스도의 방법이다. 내 기준에서 고난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은혜임을 잊지 말자. 환난은 주께서 나를 요청하는 기회라며 연단을 거쳐 그리스도의 흔적이 삶속에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자"고 강조했다.

2 부 기도회는 성서학회 김채현 학회장의 찬양 인도와 통성기도가 이어졌다. 학우들은 예수의 고난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고 신앙인으로서 철저한 회개의 삶을 기도했다. 또한 나 자신부터 주 앞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 주의 거룩한 학우로 거듭나자며 뜨겁게 기도하였다.

기도회는 60 명의 학우와 유정선 일립교육부장, 박태수 학과장 박성환 교수가 참석하였다.

사복 MT, 하나로 이어지는 지름길 ‘하이웨이’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헌신자”

▲ MT 를 마친 참여자들이 함께 하였다.

사회복지학과 MT 가 12~13 일까지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진행됐다. 하나로 이어지는 지름길 ‘하이웨이’ 를 주제로 예배와 레크리에이션, 코스게임과 단합의 시간이 펼쳐졌다.

하이학회원이 찬양으로 마음을 열었고 교목실 박민수 목사가 “이웃의 어려움을 보듬으며 보다 나은 삶을 인도해가는 여러분이야말로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헌신자” 라고 격려해 주었다.

학과 선배 박아론 (전 스마일 총학회장, 다이나믹 단장) 동문 주도의 신명난 레크리에이션이 펼쳐졌다. 시종일관 호탕한 웃음과 박수갈채가 장내를 달궜고 특히 마지막 프로그램인 하이웨이가 압권이었다. 조별로 하나의 길을 만들고 그 길 따라 자신을 표현해 줄 춤을 추며 나아가는 방식이다. 서로에게 마음이 열리고 쏟아지는 박수와 응원을 받으며 자신만의 춤사위로 싱싱한 끼를 발산시켜 갔다. 각각의 구성원이 가슴을 뜨겁게 열고서 하나의 원팀으로 거듭나는 감동적인 순간이 됐다. 코스게임으로 방 탈출, 눈 가리고 물건 맞추기, 쉿! 소리내지 말기에서 남은 열기마저 태워야 했다.

학우들은 밤늦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청춘과 비전을 주고받는 값진 시간으로 만들어 갔다. 너와 나를 넘어 사회복지학과 공동체에 속한 친구이며 형제자매임을 확인시켜 준 MT 가 됐는데 60 명의 학우가 함께 하였다.

1 학기 영어졸업고사 69% 합격

2019 학년도 1 학기 영어졸업고사가 지난 6 일 로고스홀에서 치러졌다. 140 명이 지원하고 132 명이 응시 (94%) 하여 91 명이 합격 (69%) 했다.

응시자 중 4 학년 학우들의 합격여부가 주목됐는데 35 명이 응시하고 22 명이 합격권을 통과하며 마지막 짐을 내려놓았다. 3 학년과 2 학년 학우들은 나란히 71% 합격률을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성경과 컴퓨터의 졸업인증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성경 : 5 월 18 일 ▲ 컴퓨터 : 5 월 25 일

2019 년도 제 3 차 이사회

2018 년 결산 통과 , '혁신사업단' 신설 승인

2019 년도 제 3 차 이사회가 25 일 오전 복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김창원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3 차 이사회에는 학교법인의 2019 년도 추경예산과 2018 년도 법인 (18 억 8 천만) 과 학교 (156 억 2 천만) 의 결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

법인 이사들은 " 어려운 재정에도 예산 절감과 업무 처리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냈다 . 공정한 절차와 회계 투명성도 양호하다 " 고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 시급하다 " 고 입을 모았다 . 이사회는 대학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정관변경 및 규정 개정을 통해 총장 직속의 ' 혁신사업단 ' 신설요청건도 승인하였다 .

우리대학의 부설 수탁기관인 구립 꿈빛어린이집 , 월계우리가족상담소의 추경예 · 결산과 대학어린이집 , 충무어린이집의 결산이 적정하다며 가결시켰다 .

새 직원 김지성 씨

평가감사실 근무

▲ 김지성 직원

평가감사실 (실장 김인화) 에 김지성 씨가 신규직원으로 채용돼 새로운 성서가족이 됐다 . 백석대학교에서 학부와 신학대학원 과정을 거치며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김지성 씨는 " 예전 직장의 회사문화가 신앙인으로서 감당하기 버거운 점들이 많다 보니 내적 갈등이 컸다 . 부족한 사람이 성서대학에 합류해 믿음의 공동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돼 너무도 감사하다 . 주의 영광을 높이도록 주어진 임무에 성심을 다하겠다 " 며 강한 의지를 다짐하였다 .

바자회용 물품 후원해 주세요 !

학부모기도회 ,
개교기념일 바자회 예정

학부모기도회 (회장 장인순) 가 개교기념일인 5 월 13 일 학교 정문 마당에서 중고물품바자회를 준비 중이다 . 이번 바자회에서는 선별된 각종 중고의류와 악세서리 , 생필품과 간단한 먹거리 그리고 신제품 여성 가방 등을 내놓게 된다 . 장 회장은 " 각종 의류와 생필품류 등이 필요하지만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 취지를 주변에 널리 알려 다양한 물품후원이 이어지길 고대 " 하였다 .

학부모기도회가 개교기념일 바자회 운영은 지난 2009 년 5 월 밀알축제 때 'Servant House' 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었다 . 여기서 얻어진 수익금 1 백만 원은 장학금으로 후원하는 등 이와 같은 헌신적인 선행을 해마다 이어오고 있다 .

물품 후원 문의 : 기획실 950-5513 (이강동)

제 8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환자의 영혼까지 돌보는 거룩한 사명자"

▲ 선배들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축하하며 후배들이 축가를 부르고 있다.

간호학과의 제 8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2 일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간호학과 3 학년 학우 47 명이 생명사랑과 전문간호인으로서 사명의식을 가족과 내외빈 앞에서 엄숙히 다짐했다.

선서식은 유정선 교목실장의 기도, 촛불점화와 선서, 격려사와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강당 소등과 함께 선서자 47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2 명씩 대오를 갖춰 전면부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나님과 내빈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했다.

강우정 총장은 "오늘 선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서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대학에 간호학과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 닮은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이다. 육체적 질병치료는 물론 환자의 영혼까지 돌보는 복음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고 당부 하였다.

조용균 상계백병원 원장은 미래직업전망순위에서 간호사가 가장 유망하며 점점 세분화되고 있다. 하지만 취업과정에 어려움도 존재하는데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한다. 하나님 경외와 기독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의식과 삶을 가져 달라며 축사하였다.

김조자 교수도 나이팅게일 선서식의 의미를 소개하고 간호사 직분을 정립시켜낸 나이팅게일의 삶과 정신을 살펴주었다. 삶은 하나님의 멋진 선물이라며 주안에 동행의 삶을 실천해달라고 축사했다.

이들 3 학년 학우들은 월말부터 서울시내 주요 의료기관에서 4 주간 의료현장실습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당현천서 노원등 (燈) 축제

우리 한국성서대학교 후원

우리대학 옥외 LED 싸인탑과 멋진 조화

▲ 일립관 뒷면으로 새 형상물과 청사초롱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우리대학 측면을 흐르는 당현천 일대에서 봄날 야경을 수놓는 노원등 (燈) 축제가 27 일부터 ~5 월 5 일까지 펼쳐졌다. 등 (燈) 축제는 당현 3 교부터 600 여 미터 구간에서 진행되었는데 우리대학 근처가 주요 형상물과 부스가 밀집된 거점구간으로 인기를 끌었다.

등 (燈) 축제에는 서울의 주요 명소와 영화캐릭터 등 다양한 형상물들이 물살 위로 설치돼 시선을 붙잡았다. 점등과 함께 빛과 형상이 주변과 조화된 멋진 조형물 83 점이 주제를 드러내며 야경을 밝혀주었다.

중계역을 나와 당현교 다리에서 우리 학교 쪽 방향으로 발길이 가장 붐볐다. 우리대학의 옥외 LED 싸인탑도 이번 등축제에 녹아들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일립관 좌측 천변으로 수백개 청사초롱불빛도 장관을 이루며 발걸음을 붙잡았다. 또한 꽃장식 화단과 빛의 터널, 나무와 꽃이 빛을 내뿜는 빛의 정원 등 다양한 볼거리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밖에도 민원부스 및 가상 스튜디오 체험과 초상화 그리기 및 생활공예를 체험케하는 57 개 부스도 방문자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대학은 이번 등 (燈) 축제에 후원기관으로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했다. 열흘간 진행된 행사에는 서울 동북지역민과 의정부 양주지역 등에서 수십만 명의 방문이 이어지는 성황을 이뤄냈다고 구관계자들은 밝혔다.

총장 컬럼
총장 강우정

"꼴찌로 입학해서 1등으로 졸업하게 도와주세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평가 받고 돌아서면 또 다른 평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학이 연구하고 교육을 하는 기관인지 평가받는 기관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평가 준비 때문에 밤샘하는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을 대하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5 월 8 일부터는 교육부 감사가 있습니다. 1 주일 예정인데 이 잡듯 뒤진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대교협의 기관인증평가(보고서 제출 9 월), 곧 이어 간호학과의 평가(10 월–11 월 중)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애학생교육실태평가와 교원양성기관 인증평가도 이어 집니다. 어 휴.

요즈음 대학의 형편을 들여다 보면 평가가 본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평가는 대학이 제 구실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도구일 뿐인데 주어진 일을 잘 하려는 노력 보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일에 몰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가의 부정적인 면을 탓하기 보다는 평가라는 틀과 환경 아래서도 그 순기능을 살려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더구나 소규모인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는 평가는 오히려 천재일우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2008 년도에 시작된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6 년 연속 선정 되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았고, 이번에 다시 자율개선대학이 되어 앞으로 3 년 동안 재정 지원을 받게 된 것도 평가 덕분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 • 대규모 대학들이 독식하는 판에 실적으로 경쟁하는 일반 평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잡기란 불가능 하였을 것입니다.

교육부 감사를 밤 늦게까지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는 빡세수록 좋은 것 아니야? 그래야 잘하는 우리가 빛나지." 라며 위로랍시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4 월 26 일자 '오늘의 기도'에서 박수현(사복 1) 학우가 낸 기도 제목은 "꼴찌로 입학해서 1 등으로 졸업하게 도와 주세요" 였습니다. 이는 감사, 평가를 앞둔 우리 대학의 기도제목이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한국성서대학은 1 등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직원 컬럼
권순범 대리(입학관리팀)

'다르다'와 '틀리다'

학창시절 유행한 온라인 게임 중에 '틀린 그림 찾기' 라는 게임을 자주 했었다. 똑같은 두 개의 그림을 살펴보고 다르게 그려진 부분을 비교해 찾아내는 게임이다. 요즘 들어 당시를 떠올리며 생각해보니 '틀린 그림 찾기'는 어색하고 '다른 그림 찾기'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다.

최근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다름과 틀림의 의미를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다르다'의 정확한 표기를 알고 싶어 국어사전을 펼쳐봤다. '다르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적혀있다. 반면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남이라고 풀이 하였다. 결국 비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과 셈이나 사실이 그르다는 걸로 두 단어를 풀이하고 있었다.

지난해 방송사 주최의 한 토론회에서 비슷한 경우를 접한 게 아직도 생생하다. 패널 한 분이 색다른 견해를 제시하자 상대방이 틀리다며 막무가내로 몰아갔다. 목소리도 높았고 아예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려는 태도까지 가관이었다. 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다. 보다 못한 객석 참여자가 중간에 발언권을 얻고서 다른 견해의 정당성을 반박 논리로 잘 연결시켜 주었다. 견해의 다름을 존중하는 의식문화가 필요하다는 일침까지, 기막힌 반전이었고 사이다처럼 통쾌했다.

그렇다. 다름은 나와 다른 견해일 뿐이다. 틀림을 잘 못 사용하면 마치 정답이 아닌 것처럼 왜곡된 잠재의식을 낳고 아군과 적군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버릴 수 있다. 친소 유무와 현장 상황 따라 이는 갈등과 불신의 씨앗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틀리다가 아닌 또 다른 시각의 다름을 존중해주는 문화, 예수사랑의 작은 실천이 구별된 입술로도 전해질 수 있다.

우린 서로 틀린 것이 아닌 다를 뿐임을 기억하자.

교수 컬럼
한진호 교수 (기초교육원)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지난 4월 첫 주 일립생활관 특새 기간에 간증을 하였다. 모태신앙으로 간증을 준비하며 신앙을 위해 6.25 때 북한에서 피난 온 어머니가 먼저 떠올랐다. 어머니는 황해도에서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모여 배를 타고 남하하였다. 다른 가족과는 육로로 내려와 서울 남대문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아무와도 못 만났고 지금까지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다. 신앙을 붙들고 살아온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족의 믿음의 바탕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어린 시절 부터 동행해 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 고교 때 주일학교 교사로 우리 반을 잘 이끌어 준 집사님이 계셨다. 성경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설교를 듣고 배우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성경은 물론 질문까지도 명쾌히 답해주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청년부 시절은 부장 장로님이 계셨다. 동계 수련회 떠나던 날, 꽁꽁 언 시골길에서 버스 잡으려 뛰어가려다가 그만 빙판에 넘어지고 말았다. 충격이 꽤 커 보였다. 그런데도 장로님은 손을 흔들며 우리를 안심시켰다. 수련회 기간 중 밥 해주시겠다며 권사님도 먼 기도원까지 따라와 장작불로 가마솥 밥을 해주셨다. 당시는 교회에 스타렉스나 미니버스가 흔하지 않던 시절, 기차나 버스를 같아 타고 먼 산길을 걸어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곤 했었다.

목사님은 청년부 임원회 때 모두를 집으로 초청했다. 맛있는 저녁밥을 차려주고 싶어서다. 친구 집에서 라면 한 끼만 먹어도 호강으로 여기던 그런 시절이다. 사모님의 정성과 사랑 담긴 맛깔스런 저녁상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밥상이었다. 사실 그 때는 다 그런 줄 알고 지냈었다. 치열한 세상살이 현장을 뒤로한 채 교회에서 함께 웃고 섬기며 토닥여 준 그분들. 우리들에게 항상 장래 교회 기둥들이라며 격려해 주던 분들이다.

지금은 내가 교회에서 주변을 돌아봐야 될 입장이고 보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외래교수 컬럼
양승원 교수(과학산업의 발달과 세계관)

인공지능(AI)과 기도

인공지능 발전과 뇌 과학 지식이 뜨겁다.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은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고 스피커, 스마트 TV, 자동차 등의 신제품에도 활용중이다. 필자도 삼성스마트폰의 AI 비서인 빅스비 (Bixby) 로 랩과 비트박스를 시켜보며 똘똘한 녀석이란 생각이 들었다. 인간 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이 시냅스로 연결되어 기억과 연산, 명령과 운동, 감정표현, 사고 등을 수행하듯이 딥 러닝 기술 (Deep Learning) 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공신경망과 연결돼 발전하는 걸 보며 교수의 설자리도 위협받겠다는 약간의 (?) 공포감까지 든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감성, 믿음, 영성 등의 비 인지능력에 주목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계문명은 부와 편리함을 안겼다. 반면 지나친 경쟁과 불신, 비판과 폭력 노출 등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꿈과 사랑, 생명을 귀히 여기는 따뜻한 가치관과 영성, 위로가 주는 평안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켰다.

실제로 우리의 뇌도 인지능력만이 아닌 동정심이나 감정 조절, 사회적 감성과 의사결정 등 감정 관장의 대뇌 변연계인 편도체와 연결되어 감정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감정조절이 어려운 조현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피해줬다는 뉴스를 보았다. 놀랍게도 이러한 전두엽의 활성은 지식활동 뿐만 아니라 공감하고 사랑하는 등의 비 인지능력이 클 때 더 왕성하다고 한다. 타임지 '2009 년 2 월 23 일자' 커버스토리에서 앤드류 뉴버그 (Andrew Newberg) 교수는 기도가 뇌의 전두엽부분을 활성화시켜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기도와 같은 영적활동이 몸과 마음을 균형감 있게 만들어 준다는 발표였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에 돌입중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존중과 사랑, 공감과 믿음, 생명을 살리는 소망과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할 사명이 주어졌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다른 생명들을 돌보고 관리할 능력과 책임을 가진 한국성서대학교의 존귀한 생명나무 청지기이자 생명사랑의 파수꾼이기 때문이다.

타 임 지 커 버 스 토 리 http://www.time.com/time/covers/0,16641,20090223,00.html 앤드류 뉴버그연구자료 홈페이지 http://www.andrewnewberg.com/research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엄마

딸이 사진 몇 장을 보내왔습니다. 연이은 사진들이 마치 활동 사진을 보는 듯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얼굴을 빼꼼히 내민 딸의 자식이 엄마를 발견하자 두 손 들고 젖은 머리를 휘날리며 자기 엄마에게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엄마를 향해 몸을 내 던졌다는 말이 더 사실적 표현일 겁니다. 사진 밑에 쓴 딸의 글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맛에 가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가 없으면 뭐라 말할 수 없이 쓸쓸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얘는 다 커서 왜 그렇게 엄마를 찾아" 하시면서 싫지 않은 눈치셨습니다. 집 대문을 열고 엄마가 집에 있으면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에 가방을 받아 주고는 "배고파?" 하고 물으시면 "응..." 하고 대답하던 아들은 이젠 늙어서도 그 엄마가 그립습니다. 독수리 다섯 키우기 힘드셔서 하신 말씀들이 지금 제 머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옷은 엄마 힘든 걸 생각해서 두 번씩 입고 양발은 벗어서 대야에 넣고 할 수 있으면 한 번씩 더 신어라. 밥은 먹으면 빈 그릇은 싱크대에 넣어 두고 그릇은 좀 너희들이 씻어 놔라."

'시인' 심순덕 씨가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안에서 내 엄마를 봅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한밤 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엄마도 당신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 외할머니 같은 사람은 없다." 함께 사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심할수록 당신 엄마가 보고 싶었을 겁니다. 어린 저는 우리 할머니가 난 좋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무심히 들었습니다. 그 엄마가 간 자리에 제 딸이 엄마가 돼서 보내온 사진을 보면서 내 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어릴 때 마당에 가마니 깔고서 그릇 닦고 전 부치고 상 위에 올라온 소고기국의 무가 내게는 추억이지만, 내 엄마에게는 고생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반장이라고 찾아온 내 엄마의 몸에는 변변한 옷이 없어 보였는데 그게 내 옷을 사주었기 때문인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떠나는 아들 뒷모습을 보고 뒤로 돌아 앉던 내 엄마의 등이 얼마나 시렸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재가 되어 백자에 담긴 내 엄마의 몸에 그렇게 많은 쇠붙이가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은 엄마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 다. 그래서 시인의 말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이 이렇게 시리게 아파옵니다.

엄마... 어디라고 한번 불러 보고 싶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58

도마 _ 여영미

방패보단 도마가 되기로 했어
모두가 피하는 칼
늠름히 받아내며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
내 안에서 알맞게 반듯해지고
다져지는데
까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이청준은 흉터를 '힘들게 참고 이겨낸 떳떳하고 자랑스런 삶의 한 기록'이라 말한다. 누구나 삶의 쓰라린 상처들을 겪으며 흉터를 지니게 되는데, 그 상처의 흔적은 삶의 단단한 마디가 되고 숨은 값이 되어 늘 겸손하게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시인 여영미는 흉터를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라고 말한다. 울퉁불퉁한 재료가 반듯하게 다져질 때 생기는 도마의 생채기, 그 칼자국을 피하기보단 모든 것을 늠름히 받아낼 줄 아는 의연한 삶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귀띔한다.

지금 우리는 어떤 칼자국을 받아내고 있는가? "아무쪼록 자기 흉터엔 겸손한 긍지를, 남의 흉터엔 위로와 경의를, 그리고 흉터 많은 우리 삶엔 사랑의 찬가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대학어린이집

▲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부활절 달걀을 만들고 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대학어린이집은 부활절을 맞아 워크숍과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이번 부활절 워크숍에는 특별히 부모들이 일일 교사로 나서서 아이들과 부활절 달걀을 꾸미는 시간도 가졌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반 친구를 가까이서 만나고 함께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워크숍에 앞서서 아이들은 이기훈 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감사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참석한 아이들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한 값진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학부모와 자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이 모두에게 잘 전해지도록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은혜반 박미애 교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요, 남, 자 프로그램을 수강중인 참석자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요. 남. 자' 요리하는 남자의 셀프건강밥상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9년 노원교육복지재단 사회복지공모사업에 '요.남.자-요리하는 남자의 셀프건강밥상' 프로그램이 선정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증가중인 남성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의 식생활 자립역량 향상을 도와 건강증진과 삶의 윤기를 높여주기 위한 목적을 담았다. 2월과 4월 지역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식생활 자립역량이 필요한 대상자 17명(요남자 9명 / 장해요 8명)을 선별하였다. 12월까지 매월 1~2회 요리활동이 이어지는데 관심이 높아 기대감을 갖게 한다. 본 사업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식생활 자립역량이 향상되고 자조모임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까지 기대해 본다. [**복지서비스팀 김주희**]

꿈빛어린이집

▲ 사과농장 체험장에서 유아들이 사과 잼 만들기를 준비중이다.

사과농장 체험

꿈빛 어린이집 유아 40명은 지난 11일 포천시 '사과 농장'에 현장체험을 다녀왔다. 이 날 체험은 카트 타고 사과 농원 둘러보기, 레일 썰매 타기, 동물 먹이주기, 사과파이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유아들은 노래가 나오는 카트를 타는 것에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사과 농원 전체를 둘러보고, 친구들과 함께 레일 썰매를 타면서 봄바람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었다. 이어서 사과 농장에 자리한 동물농장에서 먹이주기 체험도 특별한 기억을 갖게 하였다. 자신이 건넨 먹이를 맛있게 받아먹는 동물을 보며 뿌듯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사과 잼 만드는 과정을 듣고 직접 사과 잼을 짰고 사과잼을 이용해 사과파이도 만들고 이를 엄마 아빠랑 나누어 먹겠다는 모습에서 부모 사랑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초롱반 김주은 교사**]

성서대학교회

▲ 성도들이 벚꽃을 배경으로 특별한 추억을 새기고 있다.

월삭기도회

4월이 활짝 열리는 첫 날에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의 삶을 다짐하기 위한 월삭 기도회가 1일 오전 5시 10분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한 달간의 삶들이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길 기도하였고 6여전도회에서 간단한 빵과 우유, 커피를 대접하며 성도들을 섬겨 주었다.

벚꽃이 만발하던 7일 제4남전도회에서는 '가족벚꽃사진' 촬영을 개최하였는데 많은 성도들이 가족들과 벚꽃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추억과 정을 새기며 우애를 다졌다.

고난주간인 15~19일까지 브니엘홀에서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하였다. '우리의 소망, 예수님'의 주제로 누가복음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만나는 은혜를 맛보았다. [**서 욱 목사**]

상계백병원어린이집

▲ 상계백병원 직원과 자녀가 관계 증진 교육을 경청하고 있다.

존중파티 : 부모 – 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지난 20 일 상계백병원 직원 14 가족을 대상으로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부모 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팔찌와 목걸이, 페이스페인팅으로 부모님과 자녀의 모습을 서로 꾸며주며 소중하다는 인식과 애정지수를 함께 높여갔다. 마지막에는 케이크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존중해, 사랑해, 감사해" 라며 보듬고 안아주었다. 아이는 부모에게 감사와 사랑을, 부모는 아이에게 사랑과 행복의 원천임을 확인시켜 주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 , "또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등 어린이집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맑은반 고하은 교사**]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 행복한 부모 되기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학부모들

2019 년 행복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 ! '소중한 나'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학부모가 자신의 양육태도를 되돌아보고, 양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지식으로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지원하는 '2019 년 행복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 '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4 월 9 일 (화) 부터 격주에 한 번 씩 다양한 교육주제로 총 6 회의 부모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교육은 ' 소중한 나 ' 를 주제로 자신의 강점과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면서 자아존재감과 인간 본질에 살펴보았다. 자신과 같은 성향의 부모와 함께 대화의 시간을 통해 동질감과 공감대를 형성해 볼 수 있었다.

올해 처음 진행된 시리즈 교육에 많은 학부모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관심도를 반영해 같은 교육주제로 시즌 2 를 진행할 예정인데 신청은 본 센터 홈페이지 ' 교육 및 행사 '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보육전문요원 이주애**]

상계5동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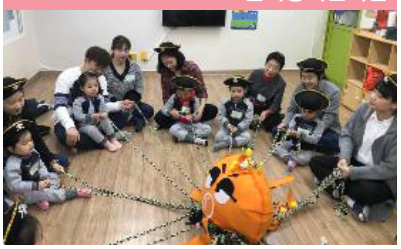
▲ 장애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놀이방법을 배우고 있다.

장애통합 가족지원프로그램 1 회기

지난 16 일 본 어린이집은 장애통합 학부모님 대상으로 행복가족지원프로그램 1 회기를 진행하였다. 학부모들이 장애통합영유아들과 함께 놀이를 통해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및 애착관계가 형성되도록 배워가는 '엄마랑 같이 놀자' 라는 프로그램이며 총 6 회기로 이뤄진다.

이번 1 회기에는 ' 몸으로 놀이해요 ' 라는 주제로 놀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방법을 실제 몸으로 익혀가는 과정이었다. 놀이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 집에서 손쉽게 아이들과 놀이할 수 있겠다 ', ' 실제 체험해보니 어렵지 않고 관계형성에 좋은 도움이 되었다 ' 라며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앞으로도 행복가족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의 행복만족도가 더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장애통합팀장 신화영**]

늘사랑어린이집



▲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업적응과정을 살펴보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FUN! FUN! 특별활동 공개수업

늘사랑어린이집에서는 13 일 'FUN! FUN! 특별활동 공개수업 ' 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만 2 세, 3 세 영유아반을 대상으로 새 학기 자녀들의 수업과 생활과정에 학부모가 적응여부 등을 살피며 서로를 공감해가는 자리이다. 공개수업은 예체능 위주의 미술과 체육, 그리고 음악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부모의 사랑스러운 시선에 자녀들의 수업열기도 평소보다 높고 쾌활하였으며 교실 곳곳마다 신명난 웃음꽃이 가득 넘쳤다.

특별활동 공개수업을 마치고 난 후 학부모들은 " 시간도 적절하였고 프로그램도 유익했습니다. 덕분에 자녀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게 됐다 " 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었다. 앞으로도 학부모와 영유아가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시켜 갈 계획이다.

[**신나는반 변윤선 교사**]

충무어린이집

▲ 중부시장을 방문해 물건을 고르며 시장 체험을 하고 있는 유아들

우리 동네 시장 나들이

지난 23 일 만 4~5 세 유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중부시장으로 시장 나들이를 다녀왔다. 유아들이 우리 동네 시장을 둘러보며 지역사회 일상을 체험하고 알아보는 시간이다. 나들이에서는 쿠폰을 직접 사용해 부모님과 필요한 음식과 생필품을 구매하면서 돈의 쓰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시장 나들이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시장에서는 다트 돌리기, 인형극, 캐리커쳐 등 다양한 부스를 준비해 놓고 장을 보는 것 뿐 만 아니라 색다르면서 재미를 주는 경험까지 해보도록 지원해 주었다.

나들이에 참여한 유아들은 "시장에는 신기하고 먹을 것도 많아요." , "시장에 와 보니 재미있어요" 등 만족한 모습을 나타냈다. [**백예나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19년 3월 21일부터 2019년 4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故강덕희(텍사스대학 교수)	36,000달러(운영)	KRX국민행복재단	150만원(장학)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2,942만원(운영)	김인화(평가감사실장)	122만원(운영)
(재)농촌청소년미래재단	381만원(장학)	박선(이사)	120만원(운영)
강우정.강진(총장)	379만원(운영)	김중완(행정본부장)	111만원(운영)
대광교회(서해원 목사)	310만원(운영)	(주)라이브텍(박경화 대표)	100만원(운영)
도영훈(교직원 가족)	240만원(운영)	강혜민(대외협력팀)	100만원(운영)
첼튼햄장로교회	224만원(운영)	사회복지법인 성민	100만원(장학)
김남웅(36회)	200만원(운영)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김민지 용아름 전다현
2.2구좌 오소진
3구좌 공지은 김예린 김우선 김채영 김태영 민주이 서미나 소계희 유상민 이수은 이예송 이윤진 임희주 장예솔 전유진 정현정 조경선 조유진 최예린 최진아 한송이
10구좌 정 완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조형섭
10구좌 곽규상 김정원 김현광 박성환 박태수
20구좌 이강동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김혜미
2구좌 엄미자
4.1구좌 서병석

부설기관
1구좌 호한나
3구좌 김은솔
5구좌 박연희 전은재
15구좌 김신덕

성서대학교회
1구좌 김봉춘

일반
1구좌 김명호
5구좌 한현숙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강동란 김시내 민이삭 박진기 이아람 정다운 무 명

1만원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영규 강영주 강은아 강재현 강정민 강정애 강주옥 강춘자 강현미 고성호 고정균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슬기 권예은 권유철 권정인 권 준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김가희 김경수 김경혜 김다솔 김도훈 김동현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욱 김민정 김믿음 김병렬 김보희 김선식 김성균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순화 김승현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유진 김은경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현 김정례 김지선 김진영 김진하 김춘덕 김태용 김필녀 김하은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효래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반석 문성령 문영주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옥 박명우 박상수 박성준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영근 박영자 박윤복 박은지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민정 배은휘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은진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미희 서유미 서정민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성순애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손혜진 손화진 송명훈 송민규 송성은 송순덕 송영자 송유지 송향숙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태양 신혜영 신호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오병휘 오은희 오인록 오찬미 오채엽 우승연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양숙 유영진 유주홍 유지영 윤솔이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근중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병현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정 이수진 이신재 이아름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정 이윤주 이은실 이은실 이은영 이은지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주희 이지은 이진경 이진리 이채녀 이철승 이춘석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이희윤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임창열 장두성 장세진 장순호 장윤국 장익봉 장희남 전명자 전미영 전병준 전상호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예지 전한나 정금숙 정다운 정선도 정성희 정연오 정영교 정영용 정옥순 정인철 정지용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경애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화 조인순 조장현 조태환 조혜진 주민자 지영환 진병원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민영 최서희 최선경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본 최예솔 최종운 최준혜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탁명화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광희 한원창 허영숙 허정운 허주옥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은희 홍자영 홍정심 황선명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강나경 구연민 국소영 권오경 김기옥 김명희 김미나 김미숙 김미향 김복녀 김샛별 김성훈 김순녀 김순덕 김승용 김연정 김연주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일한 김재원 김정훈 김지원 김지혜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대우 박재송 박지영 백연옥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송인성 신정섭 신정화 신화영 오상석 오정순 왕용분 유순희 윤광길 이구영 이기주 이도훈 이상복 이선영 이선재 이아름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인지혜 임은희 장민호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주영 조성진 진태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하지혜 한민수 한상장 황승호 황보혜영

3만원 강수진 고하은 공복순 공지은 권서영 권오규 김다예 김동교 김동원 김보라 김세련 김수진 김종숙 김하신 나예원 남수연 남지원 문순일 문지수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박민송 반세호 방애자 서명주 서미나

기부자 명단

서성숙 설보경 신은숙 양연선
양혜경 양혜영 유예진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수은 이안나
이예은 이예지 이재국 이주연
이혜민 전병민 전영이 전유진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최광희
최소린 최예린 최은희 한보미
한 솔 홍석화 황영숙 황예린

4만원 박주은 신은진 정성종

5만원 김연수 김종남 김진경 남희경
박광필 박지혜 박현주 송복순
안선례 양현석 이부호 전은진
조유진 천유림 하승훈 허성희
홍현숙

6만원 정동주

7만원 임연식

8만원 배정환

10만원 강경옥 김경란 김장교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신호정
장명헌

11만원 유선미

12만원 94학번 성서모임

100만원 강혜민 이례장학

200만원 김남웅

재학생 및 가족

5천원 김은혜

1만원 강애솔 강정희 고희자 권순길
김경남 김명선 김민아 김석정
김선경 김양순 김윤옥 김은이
김창현 문성남 박기영 박대종
박미영 박민희 박재숙 선동하
선유정 송은라 신연정 신영옥
심희정 안양희 염인형 오미선
윤운선 윤효심 이동기 이명희
이성란 이성령 이원혁 이혜진
임동화 장영철 전계화 전용숙
정창금 최상모 최진석 홍경희

2만원 김명숙 김애라 김현숙 박혜숙
서성식 엄미자 오옥경 이영림
전명자 전옥순 정해숙 최혜진
홍은선

3만원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박재완
배정숙 서재형 안태유 이종권
조대의

4만원 박지성

5만원 김경식 김선주 김성안 김종호
김형태 유정열 이재현 이지은
이한빈 전영준 정미영 허용철

10만원 서병석 이상학

45만원 이은혜

50만원 김선주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고성산 권관희 김미영
김병수 김봉재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유진 김은실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류은미
문지예 민경은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안수자
양승원 윤명섭 이기훈 이문자
이승영 이종우 이지희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전영호
정보미 정은상 조아라 조영채
조형섭 최미영 하희수 허윤민
요시다고조

2만원 고진주 권민주 김남준 김동준
김세원 김장호 문행자 박성범
박준기 박태용 손정수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상일 임현필
장지순 정영은 진달래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김미숙 김은영 박민수 박재진
방진희 신재윤 유다운 유수연
이소연 정순애 추연진
한요계벳

4만원 김덕현

5만원 권순범 김덕현 김성호 김현동
박현희 신지수 안미란 장정순
최사랑

6만원 이성아 임환석

7만원 이광삼

9만원 권경만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도경 김성경
김승호 김웅기 김정원 김정원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박성환 신금주 오윤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소정 장인순
정순례 정휘진 조현진 조혜경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11만원 이복남 이호섭 최지은

12만원 이강동

13만원 강규성 김정숙 한진호

15만원 김량헌 김은호 김희수 유미나

16만원 양희정

20만원 김창원 박태수 안정선 임지영
정해덕 조윤경 최영태

25만원 최선희

300달러 강일로

50만원 문석현

60만원 곽규상

111만원 김중완

120만원 박 선

122만원 김인화

240만원 도영훈

380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1만원 권은지 길준호 김령오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김태연 문유나
박제하 서애진 오윤아 윤보배
임재택 차도영 최미정 최선영
허성보

2만원 전안나 홍옥주

3만원 권정아 권효진 김미화 김선화
김은솔 김주은 김현애 김혜진
박미애 박선경 박천순 백예나
변윤영 서혜란 송애솔 위소진
유정현 이다솜 이선정 임미숙
임보나 임지혜 장나혜 장수진
장지영 정난경 정미옥 최하나
탁지혜

5만원 강진아 서영숙 여미희 이지연
전은재

6만원 변송이

10만원 박연희 지주나

15만원 오동준

20만원 이인경 조지선

25만원 신영자

30만원 정나나

35만원 김신덕

45만원 김화영 안미희

권선제일교회

2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김영란 한미희
배 윤.김현진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3만원 장석원

삼일성서교회

1만원 오성군 정혜란 진재호 한금순

2만원 김초롱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석계제일교회

1만원 채용문

2만원 오활란

성서대학교회

5천원 곽규상 김영숙 박선구 안숙진
임용택 최진두 하명란

1만원 강경혜 강선영 고미숙 김겸일
김다혜 김배열 김봉춘 김사천
김상은 김숙재 김신덕 김애숙
김윤선 김정숙 김주혜 김지영
김지윤 김진수 김진철 김태연
김혜옥 김혜정 남지영 류 강
민영빈 박경상 박영신 박용숙
박정하 박천순 박태수 백순옥
백향원 손진희 송인희 신양금
신인옥 안영숙 양순정 양천식
오경원 오윤아 오정연 용정자
유상호 윤복순 윤영원 이가은
이관영 이길우 이노선 이대영
이대우 이대한 이봉호 이선정
이선호 이영주 이영희 이은영
이정민 이정숙 이정임 이정철
이종옥 이주현 이지선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장근문 장병호
장혜린 전옥순 전하준 전해성
정갑순 정나영 정선희 정승연
조건희 조병하 조영희 조정선
조준희 조지선 조현진 최명순
최영태 최용석 최정자 한성실
한충헌 허진순 홍기순 황서린

1만5천원 김은미 유은주

2만원 강규성 강유진 강홍림 권정숙
김덕현 김민자 김병철 김온순
김웅기 김인자 김혜련 김혜진
남윤주 변경선 양태환 오경모
유정선 이승림 이윤봉 임성일
정도유 정명수 조성민

2만5천원 권경만 김미선

3만원 김동수 김봉춘 김영헌 김원태
김현석 이숙영 이은실 최대만
최미숙 최순남

4만원 김일선

5만원 길용희 김동선 박세건 유형창
조혜경 한진호

8만원 전명진

294만원 성서대학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미영 김상오 홍성호

이례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2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재혁 김정희
이승학 최경자 최영란 최영숙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이수병
이준구.안춘자

3만원 김덕규 김옥자

5만원 한금례
원로 · 은퇴장로회

10만원 무 명 현희철 김윤규.신인자
권사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김종구 이혜선

24만원 구제위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숙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10만원 평화교회

15만원 김광석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정인숙 진효숙

2만원 유순남

4만원 김양례

일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영욱 권창석
김균태 김기수 김대성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배숙 김범설
김범준 김승애 김양권 김유벽
김유진 김은경 김인호 김진영
김천수 김효정 류계현 류찬성
박미숙 박영해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소아름 송수용 안애숙
오경희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원영훈 유해연 유화실 이관헌
이민우 이성희 이수진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이호정 장명웅 장지화 정지수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하경국
한상은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김윤숙 김종환 김하람 서병준
윤주원 윤주하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3만원 김미수 장문석

4만3천원 박은영 이경숙

5만원 강한성 문홍대 석지현 이미경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한현숙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10만5천원 무 명

30만원 박순정

36,000달러 故강덕희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
김포예수사랑교회/꿈꾸는교
회/동두천성실교회/맘키즈푸
드/이음기업/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주)엘리
트코리아/문양교회/성복중앙
교회/열방교회/예수꿈사랑교
회

3만원 강남임마누엘교회/금곡광염교
회/섬기는교회/신작교회/우리
교회/의정부좋은나무교회/태
광성서교회/푸른동산교회

4만원 주님의교회

5만원 다드림교회/상일교회/일동성
서교회/천성교회/충은교회/하
늘누림교회/행전교회/향기나
무

7만6천원 도서관

8만원 새샘교회

10만원 (주)아이앤유니/가성교회/구리
중앙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개
혁총회/두암산업(주)/만나교
회/상록교회/오감발달연구소

14만원 우리회

20만원 (주)소원기건/서부중앙교회

21만원 성남시장학회

200달러 우리침례교회

30만원 구리성광교회/노아인터내셔
날/염창중앙교회/한민제일교
회

33만6천원 복음제일교회

100만원 (주)라이브텍/사회복지법인 성
민

150만원 KRX국민행복재단

224만원 첼튼햄장로교회

310만원 대광교회

381만원 (재)농촌청소년미래재단

소계(20190321~20190420) 130,655,753

누계(20190301~20190420) 150,571,253